

**안전·안심
민생 구청장**



**1 진짜 일꾼
진교훈**

배포일	2023. 10. 5.(목)	담당	도건 (010-9686-6068)
-----	-----------------	----	--------------------

이해찬, 진교훈에 “토론 잘하더라... 끝까지 진심 전하라”

5일 캠프 격려 방문... 진교훈 “3표 부족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임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5일 오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캠프를 방문해 진교훈 강서구청장후보에게 “TV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조리 있게 잘 말씀하시더라”며 “끝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5공 청문회 스타’ ‘건국 이래 최초의 실세 국무총리’ 등 예리함과 논리적인 토론 능력으로 유명한 이 상임고문은 “상대 후보가 진 후보를 공격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한 뒤 “일일이 맞상대하지 말고 할 말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한 진 후보는 “투표율이 걱정인데 3표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서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진 후보는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마곡개발과 고도제한 완화를 자기가 해낸 것처럼 말하는데 역사를 모르는 소리”라며 “마곡개발은 2005년에 처음 계획을 세웠고 민주당 시장 시절 첫 삽을 떴고, 고도제한도 2014년 민주당 구청장 시절에 30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진 후보는 “급기야 제가 등촌동에서 19년째 살고 있는데 등촌동 재개발공약이 이해충돌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한 뒤 “김 후보의 흑색선전에 신경 쓰지 않고 요즘 지역발전공약을 중심으로 구민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마지막 일주일이 진짜 선거운동”이라며 “진실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성실하고 절실한 자세로 유권자를 만나면 진심이 전달될 것”이라고 격려했고, 진 후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끝

※ 사진 별첨

